

‘숫이 김정 나무란다’

- 양봉조합 16년 장기집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
- 클로람페니콜 검출로 폐기처분 된 수입 꿀
- 수매물량 소화 못하면서 대외적 비방
- ‘2010 아시아 대회’ 유치단 출발
- 양봉협회 선거 개입, 도를 넘어서



지난 호에 이어...

한국양봉농협이 주장하는 벌꿀 정화는 그 명분이 타당하며 장기적인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양봉협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여 왔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고 대외적으로 사양꿀에 대한 비방을 지속하고, 대다수 양봉농가와 판매업체까지 사양꿀 생산자 및 판매업자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양꿀은 양봉농가 중 일부가 계획적으로 생

산하는 자도 있지만 로얄제리, 화분 생산과 꿀벌을 사육하는데 부수적으로 생산되기도 한다. 계획적으로 사양꿀을 생산하는 농가는 강도 높은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으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사양꿀에 대해서는 판매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일반잡화꿀 인증제를 폐지하고 일반잡화벌꿀 판매자에게 사양벌꿀 첨가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가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 글씨를 더욱 크게 표시해 보완할 계획이다.

양봉농협에서도 진정 정화의 의지가 있다면 비방에서 벗어나 벌꿀 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조합은 사양꿀 때문에 조합 꿀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매년 40억 원(약 40만포)어치의 설탕을 조합원에게 판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조합이 '벌꿀정화, 벌꿀정화'를 외치고 있지만 조합 이사가 조합장이 승인해 넘겨준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수입꿀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 때문에 벌꿀 정화가 안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06년 9월 우리는 벌꿀 항생제 파동으로 그 이후 몇 년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당시 조합에서는 이 모든 책임을 판매업체에게 물었다. 그러나 양봉조합에서 2004년도에 약 150드럼의 벌꿀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다가 항생제 파동 이후 자체검사를 실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자 판매를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이 당시 항생제 파동이 조합에서 판매한 수입 벌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조합에서는 벌꿀 항생제 규격은 2007년에 신설돼, 2004년 수입한 벌꿀은 검역과정에서 식품공전규격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고, 2006년 자체 검사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자마자 식용 판매를 중단, 금번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판매 중단 이후 다시 판매되어 충남지역에서 농림부 품질관리원 단속반에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이를 '쉬쉬'하고 거짓으로 일관, 식품이 아닌 공업용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협에서 꿀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이를 판매한 사람이 조합 이사인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양봉농협 이사회는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수입 꿀에 대해 폐기처분을 승인했다. 그럼에도 조합장 승인으로 이 수입 꿀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해 판매토록하고 하고, 이 임원이 00양봉원에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압수된 수입 꿀은 농협 강원공장에 방치되어 있는데(사진 참조) 이마저도 전량 회수 되지 않고 일부 물량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잔여물량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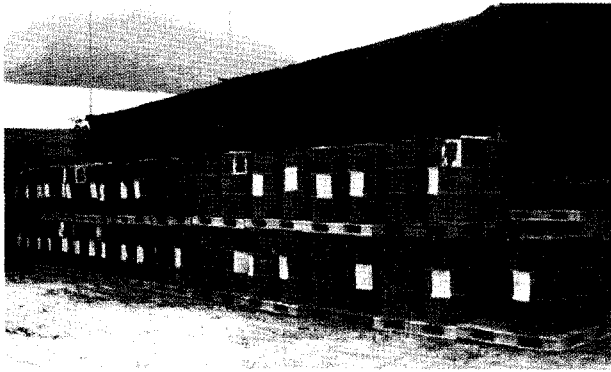
더욱이 수입꿀의 폐기처분 통보로 수역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를 은근슬쩍 처리하려고 하다 현장적발까지 당하니 도대체 누구의 조합인지 묻고 싶다.

또한 양봉농협이 공업용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수입꿀 물량은 2006년 9월(항생제꿀 언론보도) 이전에 24.5톤, 그 이후(판매중단 결정 이후)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판매한 10.3톤이다. 그런데 도대체 벌꿀이 식품으로서 사용되는 것 말고, 공업용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양봉농협은 벌꿀 약 4천 드럼정도를 수매하여 이 중 500~700드럼만을 소분판매 하고 있다. 매년 약 4천 드럼의 수매물량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과 판매계획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사양꿀 때문이라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양봉조합 이외에 벌꿀을 수매해 판매하는 농협은 13개소로 이들 벌꿀 판매농협에서는 판매량만큼 벌꿀을 수매, 자체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양봉농협보다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다. 양봉조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만약 벌꿀 풍작으로 대량생산되면 이를 수매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다. 이 때에도



▶ 클로람페니콜 검출로 폐기처분이 내려진 수입 꿀이 처분되지 않은채 농협 강원공장에 방치되어 있다.

사양꿀 때문이라고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더욱이 양봉조합은 조합의 잡화꿀 약800드럼이 항생제(보사부) 기준을 초과해 판매업체에 팔지 못하고 있으며, 약 1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손실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조합원에 '쉬쉬' 하고 사양꿀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양봉농협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임에도 조합장은 '양봉조합에서 벌꿀 수매를 해서 소진이 안 될 경우 양봉업계가 무너진다, 폭동이 일어난다'는 발언들을 전국 기관과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자랑인양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양봉조합은 조합의 수매량과 판매 부담

을 줄이기 위해 벌꿀 생산량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분, 탄소비, 항생제 규격 기준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설 탕꿀이나 가짜꿀이니를 운운하며 조합꿀만을 판매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최근 많은 양봉인들의 노력으로 '2010년 아시아 양봉 국제대회'가 한국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양봉협회는 한국 유치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국 항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양봉대회에 참가해 베트남, 인도와의 경합을 거쳐 2010년 아시아 양봉 국제대회 한국유치권을 획득했다.

협회는 이번 아시아 양봉대회 유치에 머물지 않고, 2010년 아시아양봉대회를 진행함으로써 2015년 세계양봉대회도 개최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제대회 유치는 한국의 양봉산업을 알리는 계기이며 우리양봉산물과 봉기구를 세계로 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양봉산업을 세계 제일의 수준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각 기관에 양봉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도 될 수 있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2010년 아시아 양봉대회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확대·구성할 것이며, 양봉 관련 업계의 소외층이

※ 연간 벌꿀 생산량 비교(판매현황)

구 분	연간 생산량 (2007년도 기준)	한국양봉농협 (수매량)	한국양봉농협 연간생산량 (%)	판매업체판매량 (13개 농협)	판매업체판매량 연간 생산량 (%)
톤	26,000톤	1,152톤	4.43%	24,848톤	96.57%
드 럼	90,278드럼	4,000드럼		86,278드럼	

없도록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에 신경 쓸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양봉대회 개최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는 이 시기에 양봉조합은 양봉인들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양분시켜 분열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양봉대회 유치단이 출발할 당시 인천공항내에서 양봉조합에서 비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금일봉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도사업비 명분이었다고 하나 조합장 임의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이다.

조합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당당히 비조합원들 앞에서 돈을 전달한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돈으로 불식시키고 상대적으로 비조합원들의 박탈감을 주기 위함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이런 돈 선심행위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작년 해외연수교육 사전교육 때에도 돈 가방을 메고 이날 참석한 20명 가운데 조합원만 별도로 불러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이다.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것이 어떻다는 뜻이 아니다. 양봉협회는 조합과 협회와의 화합을 위해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교육에도 조합원과 협회 회원을 같이 포함시키고, 조합에게 매년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은 이와 반대로 꼭 뻥 보이려는 눈앞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등 조합원과 협회 회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봉협회에서는 각종 FTA협상으로 수입 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단식투쟁을 하고 정부와 대처해가면서 양봉농가를 살리기 위해 애써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봉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돈 봉투

가 오가는 모습을 보니 양봉조합과 우리 양봉산업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런 상황이다. 더욱이 앞으로 더 많은 수입 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현재와 미래의 양봉산업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조합의 행태가 답답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더욱이 조합장의 이런 선심 행위는 본 협회가 여러 분야에서 양봉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연간 방역비 32억 원, 화분수입 부가세 면세금액, 소광대 소초 채밀기, 훈연기 부가세 면제, 폭설·수해·사고 피해 보상금액들이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는 금일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분열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업계가 잘되기 위해서는 협회, 조합, 양봉인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양봉조합은 마치 자신들만이 주축인 것 마냥 행동하고 있으며, 양봉조합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가락시장을 방문, 농협을 강하게 질책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경제사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럼에도 양봉조합은 경제사업 적자를 여신사업으로 메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사업이 적자라는 것은 수매한 벌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에 신경 쓰기보다는 사양꿀 때문에 경제사업이 적자며, 그나마 여신사업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신경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봉조합은 이제 거듭나야 한다. 선심성 정책을 버리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간



농협 선유골은
 엄격한 벌꿀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엄밀검사를 거쳐 **발소균위험소비**
 (-22.5%이하)와 당여율을 추가로
 검사하여 고순도 벌꿀만을 유통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벌꿀 전문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대표벌꿀 농협선유골 02)2060-6582

▶ 생산자(조합원)와 판매업체에 탄소비 -23.5%를 강요하여 수매 판매토록 하면서 조합꿀은 탄소비 -22.5%로 판매하고 있다.(홍보물자료)

사업 이익배당금이 조합 직원의 배불리기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양봉협회를 양봉조합의 경영논리에 맞추어 마치 협회가 잘못된 것처럼 전국에 발언하는 모습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은 최근 양봉조합 정기총회에서 대회를 통해 양봉업계와 양봉협회에 관한 거짓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언급했다.

수매한 꿀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협회와 판매업체들이 처리해주고 있음에도 '시중에서는 사양꿀이 판을 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좋은 꿀을 생산하고도 팔지 못해 양봉업계를 떠나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벌꿀 홍보에는 뒷짐 지고 있으면서 "대형할인마트와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양봉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대처해 달라"고 자신들의 일을 양봉인들과 판매업체에 떠 넘기고 있다.

더욱이 '올해 협회가 벌꿀검사를 약 1만8천건

을 했고, 최소한 1만8천여건이 넘는 꿀이 봄에 정리한 채밀에서부터 설탕꿀이다'라며 근거 없는 거짓말로 양봉농가들을 현혹시켰다.

이러한 양봉조합장의 행태는 도를 넘어 양봉협회를 조합 소유물인 것 마냥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11월 20일 열린 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에서 하라는 양봉농가 교육(마케팅 교육)은 뒷전으로 한 채 '항생제 규격 일부를 더 강화해도 된다.' '앞으로 양봉업계의 지도자상은 이러이러 해야 한다'며 협회 지도자 선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장시간 발표했다.

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협회 임원이 되기를 중용하고, 현 집행부(협회)를 흔들고자 하는 술책으로 예민한 시기인 협회 선거기간에 협회 임원, 지회장 선출에 관여하여 논한다는 그 자체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협회 지도자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협회 차원에서든 가만히 뒷짐 지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협회에서도 차기 조합장 임원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자질을 검증하자고 주장할 것이며 지금 현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조합장은 이러한 협회의 입장을 살피고 자기 직분에 맞게 처신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나가라고 충고하고 싶다. 또한 협회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양봉농가들은 조합장이 16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16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사업과 판매는 뒷전으로 한 채 오직 신용사업에만 전념해온 조합장을 규탄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 우리 양봉인의 매운맛을 보여주자고 주장하는 바이다.

“43조원...양봉산업 가치 재평가돼야”

한·미FTA 대응방안심포지엄서 강조

한·미FTA의 추진과정에서 양봉산업이 스스로 해법 찾기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양봉농가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한국양봉협회(회장 전기현) 주최로 '한·미FTA 양봉분야 대응전략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농업과학기술원의 이병렬 박사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농무성이 1983년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현재 연간 3천억원 정

도의 벌꿀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농작물의 수분의 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는 이에 143배에 달하는 43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항생제보다 무려 1천2백배 이상의 항균작용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봉독은 전세계 141억불 시장을 갖고 있는 전도유망한 분야인 만큼 봉독 활용분야를 선점한다면 우리나라로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양봉조합의 조상균조합장은 "아직 시장에서

- ◇ 주 최 : 농협중앙회
- ◇ 주 관 : 축산신문
- ◇ 후 원 : 농림부·축산관련단체
- 참석문의 : 축산신문 편집국
농협중앙회 사토

유통되는 꿀 가운데 50%이상이 순수벌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농가 스스로가 사탕꿀 생산을 자제하고 고품질 천연꿀 생산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전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 약 4만3천명의 농가에 이들이 사육하는 봉군만 해도 미국전체 사육군수(2백41만군)와 비슷한 2백1

으면 한다. 솔직히 지금까지 사양꿀, 설탕꿀 문제 등이 소비자에게 부각되어 양봉업계 위신이 추락한 것은 조합장이 타기관, 대외, 소비자에게 우리의 치부를 홍보했기 때문이 아닌가.

양봉협회 역시 앞으로는 벌꿀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천연꿀, 사양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땀땀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홍보하여, 더 이상 사양꿀로 인한 소비자 불신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제 한국 양봉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화 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양봉산업 존립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이다.

생산자와 협회, 농협이 함께 양봉산업의 발전과 양봉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서로의 비방은 자제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봉**

※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발신 : 한국양봉협회,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전국 축산단체협의회, 농민연합
- 수신 : 전국 농민단체 및 기관
- 주요 보도 내용
 - 클로람페니콜 검출로 폐기처분된 수입꿀을 판매하다 현장 적발
 - 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미뤄 (양봉산업발전 저해)
 - 16년에 이은 20년 장기집권 의욕 규탄·저지
 - 지도사업비 명분으로 조합원에게 노골적으로 돈 뿌리는 한국양봉농협

▶ 한미 FTA협상 대응 세미나에서의 조합장 발언 요지(2006.6.23 축산신문)

협회가 그동안 조합의 비방에도 참고 있었던 것은, 일단 조합이 벌꿀 정화를 주장하며 좋은 꿀을 생산, 좋은 꿀만 판매하자고 대외적으로 외쳐온 명분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벌꿀에 관련한 좋지 않는 내용은 밖으로 흘러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봤자 결국 생산농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조합의 비방이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양봉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협회는 회보로나마 작금의 실태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끝으로 양봉협회와 양봉농협은 해야 할 일이 다르다. 남의 밥그릇, 손가락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 조합의 가장 큰 쟁점은 벌꿀 홍보와 소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조합장은 이제 의례적인 사양관리 교육은 그만하고 조합원과 양봉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또한 정책적인 문제는 협회에 위임하고 제발 밖으로 사양꿀, 설탕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